



들꽃편지 661

2024.2.19. 우수
<https://cyw.pe.kr>

환대(hospitality)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베네딕도는 수도자들이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 크게 침묵, 청빈, 복종, 환대 네가지를 강조합니다. 환대는 수도회 정신의 정수입니다. 제53장 손님들을 받아들임(환대)에 대하여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할 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장차)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러낼 것이며, 특히 신앙의 가족들과 순례자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순례자들을 맞이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세심히 기울일 것이니,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접되시기 때문이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환대 공동체'였습니다. 그 환대의 대상은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자유민, 노예, 소수자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다.(갈3:28)

베네딕도는 "환대는 그저 밝은 미소와 따뜻한 밥 한끼로 외부인을 맞이하는 그 이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환대를 의미하는 영어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의 어원인 '호스페스(hospes)'는 주인(host)이 손님, 낯선 사람, 방문자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병원(hospital), 호텔(hotel), 호스피스(hospice)도 모두 나그네, 병든 사람, 손님에 대한 환대와 연결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환대 대상은 나그네, 가난한 자, 이주민,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성소수자등등 정의의 손길이 닿지 않아 억울함과 불평등 가운데 탄식하는 이들 모두입니다.(강남 부자들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타자에 대한 강한 배타성을 버리고 환대 사역을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정의집 환대사역을 하고 싶은 최용우 올립니다.

세상에서 보고싶은
변화가 있다면 직접
그 변화가 되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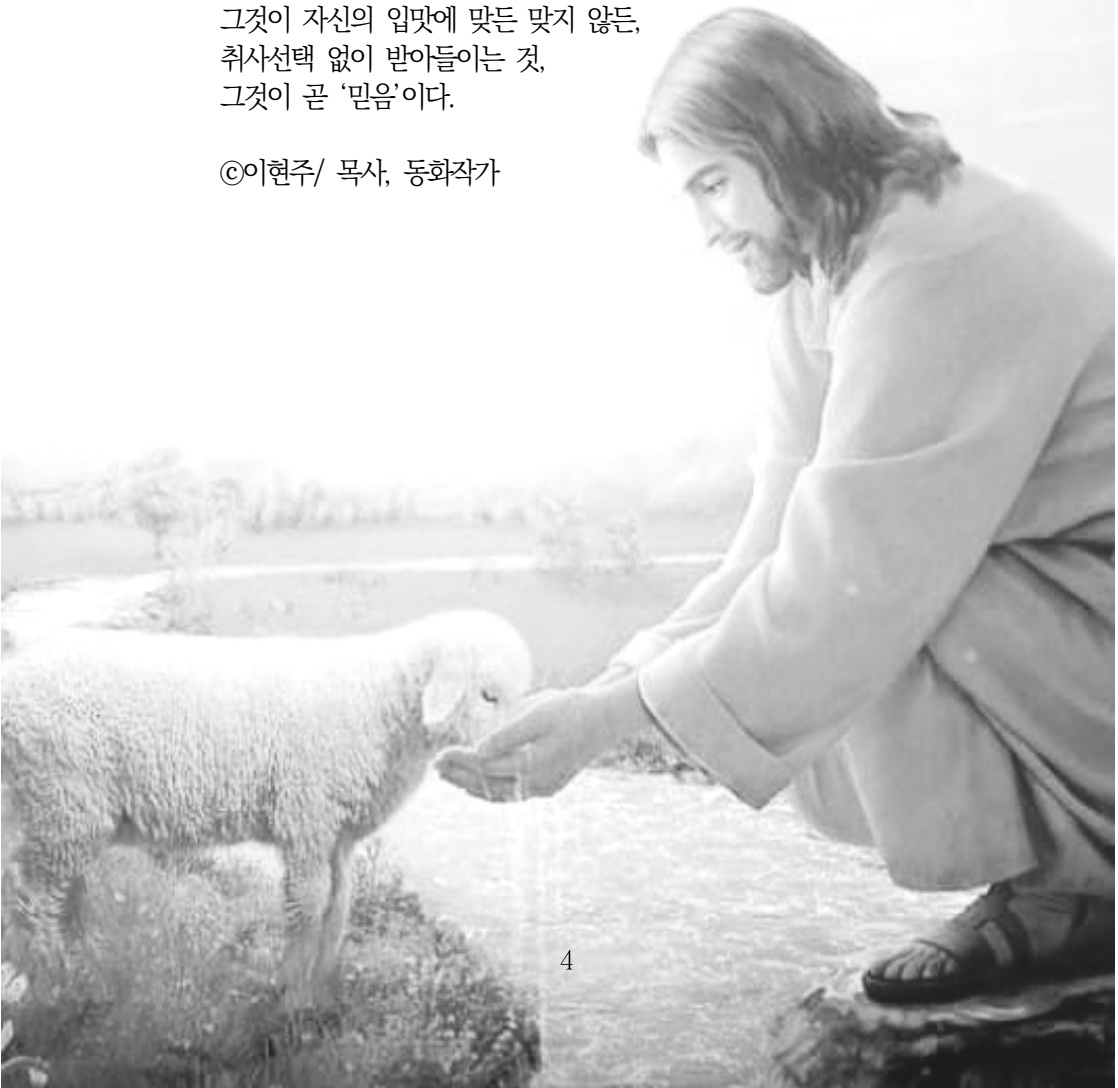


(페이스북 Jo Han님 담벼락에서 가져온 그림)

선물

선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선물이 되는 법이다.
조건 없이 주시는 모든 것을,
그것이 자신의 입맛에 맞든 맞지 않든,
취사선택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52 에이 쌍

한 아파트 입주민이 밖으로 나가다 말고 경비실 문을 두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요.”

가보았더니 누가 그랬는지 음식물 찌꺼기를 흘린 것이 여기저기 가득합니다.

“에이 쌍.”

걸레로 닦아낸 뒤 경비실로 돌아오니 한 주민이 저를 부릅니다.

“아저씨 뒤결 화단에 가보세요.”

가보았더니 위층에서 던진 휴지와 유리병들이 화단에 널려 있습니다.

“에이 쌍.”

집계로 다 줍고 나자 아파트 이주머니가 경비실 노크를 합니다.

“아저씨 분리수거 포대가 짝 찢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갔더니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버린 것들로 지저분합니다.

“에이 쌍.”

그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거 치우라고 아파트에서 월급 주고 너를 쓰는 거 아니니?”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부터는 감사하면서 즐겁게 치우겠습니다.”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조건없는 압도적인 사랑



토저 마이티 시리즈 32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40쪽 18,000원 규장 2022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격 없는 나를 압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만나라!
그 사랑으로 성장하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라!

1.사실 보도

예수님의 교훈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보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요3:11)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저런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끌어다가 만들어낸 교훈이 아니고, 그분이 천국에 계셨을 때 보고 듣고 알았던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도하신 것입니다.

2.인류의 두 머리

인류의 머리는 둘인데 하나는 ‘첫 아담’이며 ‘자연적 인류의 머리’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지만, 모든 이들이 이 첫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고전15:22) 또 하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속량 받은 ‘영적 인류의 마지막 머리’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고전15:44-45)

3.두 인류

이 세상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첫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5:1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4.두 나라

이 세상은 ‘육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성령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이 두 나라는 쉽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사실 엄청나게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 속량 받은 자들은 비록 아담의 씨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 아담의 씨로부터 건짐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새롭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5.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성령의 나라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고, 한 아버지와, 한 구주와, 한 주님과, 한 신랑을 모시고 있고, 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요17:22)

6.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나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백성인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7.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은 인격체(人格體)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정적 사랑에 대해 논할 때에는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처리하지 못하실 만큼 인간의 큰 죄는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8.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요3:16)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라고 하셨습니다.

9.하나님의 눈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들 때문에 겪으신 고통과 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서 부패와 죄를 보실 때마다 고통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 감정적 사랑

하나님의 감정적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으며, 무한합니다. 그분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분의 감정적 사랑에는 불같은 뜨거움이 있고 절대적입니다.

11.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반역하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진노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적 본성은 그분을 밀어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회개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12. 사랑의 동력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형상에 뿌리를 두며 그분의 본성과 성품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만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단계씩 변화시키는 그분의 사랑의 동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적 사랑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합니다.

13.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만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것처럼 보였다가 그분을 따를수록 그분의 사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14. 자격이 없다

마귀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결국 부루퉁한 표정으로 어느 구석에 틀어박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격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의 감정적 사랑이 나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15. 자격이 있다

만일 내가 내 자격을 의지해야 한다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그분 앞으로 끌어당겨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그래서 나의 삶은 아주 매력적이 됩니다.

16. 흘러가는 사랑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감정적 사랑을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랑은 그분에게로 다시 흘러가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갑니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7.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며, 날마다 내가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18. 조건 없는 사랑

대부분의 종교는 '당신이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지켜야 신에게 복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19. 목적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요 3:17)입니다.

20.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거나 불가항력(不可抗力)인 경우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요3:17)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독서일기 - 최용우

누가

파도가 밀려와
절벽을 세계
철썩 때린다

파도가 아플까
절벽이 아플까
내가 아프다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맛글]

unim / 때로는 보는 사람이 더 아픈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6쪽(울컬리) 13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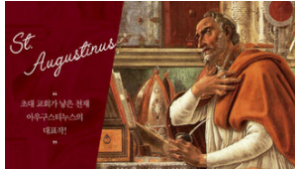


꽃같은 그대 있어
이 세상이 꽃 같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시

최용우 지음
216쪽(울컬리) 15000원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주의 비교



278.시편 73편의 의의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과 천사들은 가르침을 베풀었다. 율법 시대에도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써 정화된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가르침을 믿었다. 그 시절에도 천사들의 증개로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예언자들이 있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시편73:28)라는 시편의 예언도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천사들을 신인 줄 알고 섬기는 것은 천사가 바라는 바가 아니며, 그들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인 하나뿐인 신께 다 함께 숭배드리기를 원한다. 천사들은 우리가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제물이 되기를 바란다. 천사들은 우리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며 우리가 자기들처럼 복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행복하고 영원한 영들, 천사들이 우리를 시기한다면 그들에게 행복은 없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뿐인 하나님을 섬길 때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더 큰 도움을 준다.

279.포르피리오스는 참된 신과 마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포르피리오스(3세기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저서가 있다)는 주술을 쓰는 친구들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는 신의 일을 예언하는 천사들이 땅 위로 내려와 주술사에게 신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다른 부류의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높음과 깊음에 대해 널리 알린다고 하였다.

280.포르피리우스의 불경함은 아폴레이우스의 오류를 뛰어넘었다

아폴레이우스(로마의 소설가, 카르타고 아테네에서 활동)는 포르피리오스의 동료로 열렬한 플라톤 학파이지만 이 사람이 저지른 오류는 그래도 인간적이고 참을 만한 수준이었다. 아폴레이우스는 좋건 싫건 마귀들이 병든 정념과 정신의 혼란으로 움직이며 그 마귀들이란 달에서 나와 달 아래 머문다고 했다. (계속)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1



1. 누구일까?

이 시대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목사들이겠지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성경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목사들이겠지요. 그러면 반대로 이 시대에 성경을 가장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목사들’일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말고가 없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믿든 말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7장1-23절에서 하신 말씀을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니 “네가 뭘테 목사들을 까냐?” 하고 저한테 기분 나빠 하면 안 됩니다. 전 밤송이는 잘 까도 사람을 까본적은 없습니데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파송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교 ‘총회이단대책위원회’에서 예수의 이단성을 조사하라고 출장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민족주의적이면서 종교적인 사람들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근본주의 교회에 돈 많은 ‘장로, 권사’같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로서 오늘날 ‘신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성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의 신학적 지식과, 제사장들의 종교의식은 유대교를 지탱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도 여전히 바

리새인 장로, 권사들과 서기관(울법학자) 신학교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기독교회를 지탱하는 삼각기둥입니다. (7701)

2. 예수님과 기독교인 세력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그는 어린아이였기에 멋모르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예수님의 집회 장소에 갔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마가는 장성한 후 '베드로'를 비서처럼 수행하면서 도왔습니다. 아마도 그때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마가가 복음서를 썼다고 봅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실상 '베드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교만하고 음흉하고 비판적이고 논쟁적이며 비굴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시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셨을까? 그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몇십년이 흐른 뒤이며 나사렛파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에 달한 때여서 아무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글 속에 섞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직접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서울 깽쟁이'같은 비호감의 태도와 말투로 갈릴리 촌놈들을 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7702)

3. 특별

특별(特別)이란 '보통보다 뚜렷하게 다르다. 다른 것에 비해 훨씬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라고 하며 자식을 낳으면 죄다 서울로만 보내려고 합니다. 하하 그런데 우리동네도 '어느 새부터 특 별시가 되었져(세종특별시) 그런데 제주도도 '특별도'라네... 강원도도 특별도라네.. 전북도 특별도라네... 뭐야, 왜 너그들만 '특별해?' 우리도 특별해질래...하며 충북, 경북 경기북도도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달라고 한답니다. 그냥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 이름에 다 '특별'자를 넣읍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는 중인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세종시가 수도는 아니라고 판결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들먹이며 수도(首都)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다.(2004헌마554)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옮기면 집값 떨어지니 기사를 쓰고 반대한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 알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다 모여있는 ‘수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한 것은 그들이 기득권을 가진 주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는 주요 교회들이 죄다 강남에 있어 ‘강남 기독교’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우월의식으로 가득하죠.

이로 보전데 2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울을 중심으로 권력과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우월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빠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말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7703)

4.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갈릴리까지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꺾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규칙(룰)을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기독교도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못지않게 철저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은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하자”는 설교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일’에는 돈거래를 하는 것도 안되고 일하는 것도 안되고 여행가는 것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무서운 심판자’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저주를 받을까 무서워 안식일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죄인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행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고 족구를 하면서 노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빠’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도 받아주시고, 세리와 죄인들도 용납하시고, 다른 종교인들과도 어울리고 이방인들과도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근본주의 보수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삐딱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7704)

5. 손을 잘 씻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독수리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울컹!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떼어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지역은 지금도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는 호텔같은 곳은 포크와 나이프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아무것도 없으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필히 개인 숟가락젓가락 세트르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만 음식을 집어 먹는 것이 예의입니다. 왼손은 똥누고 똥꼬를 물로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구분이 명확합니다. 왼손으로 음식을 집으면 현지 사람들이 못 볼 것들 본 것같은 혐오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따깝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을 먹기 전에 필수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그것은 위생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발 더 나아가 손 씻는 것을 '정결의식'으로 만들어서 '계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매우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심지어 물이 없을 때는 '물로 손을 씻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 계명을 어기지 않는 방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떼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손을 안 씻고 밥을 드셨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 했겠지요. (7705)

6. 정결의식과 세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떼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결의식'이 점점 강조되면서 나중에는 '세례(침례)'에까지 이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시체를 만졌을 때 온몸을 씻는다는가 하는 '의식'은 있었지만, 죄를 씻는 세례(침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 그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세례(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 그 세례도 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장로의 유전을 따른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유전을 따라 요한에게 세례(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으

로서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세례(침례)는 아니지만 세례(침례)의 의미를 드러내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벧전3:20,22)과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고전10:2)과 할례 의식(골2:11,12)입니다.

에베소교회 제자들은 바울에게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고 대답합니다.(행19:3)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3:8)고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개혁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물세례(침례)는 모두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정결의식’입니다. (7706)

7. 장로들의 전통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장로의 전통’ 운운하며 예수님께 따졌습니다.(막7:5) 유대인들에게 마치 ‘헌법’과 같은 중요한 권위가 있는 말쑥은 토라(Torah)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 토라의 해설집입니다. 모세오경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법률이나 시행세칙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토라’보다 ‘시행세칙’이 훨씬 더 막강한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통과시키면 행정부가 그 법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어떤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법을 거부하거나(거부권), 아니면 원래 법과 반대되는 뽕뽕맞은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원래의 법을 무력화시키며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법을 농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 25%짜리 대통령도 큰소리치며 대통령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단이나 노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제도나, 규칙이나, 암암리에 이어지는 관행같은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같은 세세한 것들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도 각 교파나 교단마다 너무나 달라서 어쩔 수 없이 교파나 교단마다 자기들만의 기준이나 세칙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신앙의 본질로 착각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입니다. (7707)

8. 말과 마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줄줄 나왔습니다. 옷소매에도 성경 구절을 달고 다녔고, 집안 곳곳에도 고개만 돌리면 보이도록 성경 구절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성경을 독경하고 지극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태도와는 달리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사 29:13)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꼬집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은 얼마든지 말 따로 마음 따로 따로국밥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의 금요철야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찬양 순서가 끝나고 인도자가 통성기도를 시킨 다음 불이 꺼졌다가 켜지면서 다음 순서로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문득 눈을 뜨고 인도자가 마이크에 대고 입으로 '울랄랄라라라...' 통성기도를 하면서 손으로는 분주하게 스테프들에게 다음 순서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인도자는 '통성기도'가 아니라 '원활한 순서 진행'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은 얼마든지 말과 마음 따로따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상황이 제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7708)

9. 공정의 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헛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야는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양 가르친다.'(공동번역 막7:7)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리는도다'(막7:7-9)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계명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속여서 가르치

는 것을 '헛된 예배'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설교는 '긍정 설교'입니다. <긍정의 힘>(조엘 오스틴)이란 책은 "항상 승리와 풍요로움, 축복과 희망을 생각하라.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멋진 생각을 품으라. 당신은 마음으로 어떤 미래를 보는가? 지금보다 강하고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더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기업이나 시민문화 강좌에서도 강사들이 '긍정의 힘'을 강의합니다. 이런 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중들의 심리적 욕망에 부응하여 이런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믿고 자신들의 공로와 업적을 만드는 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망의 길'(잠14:12)입니다. (7709)

10. 목적이 이끄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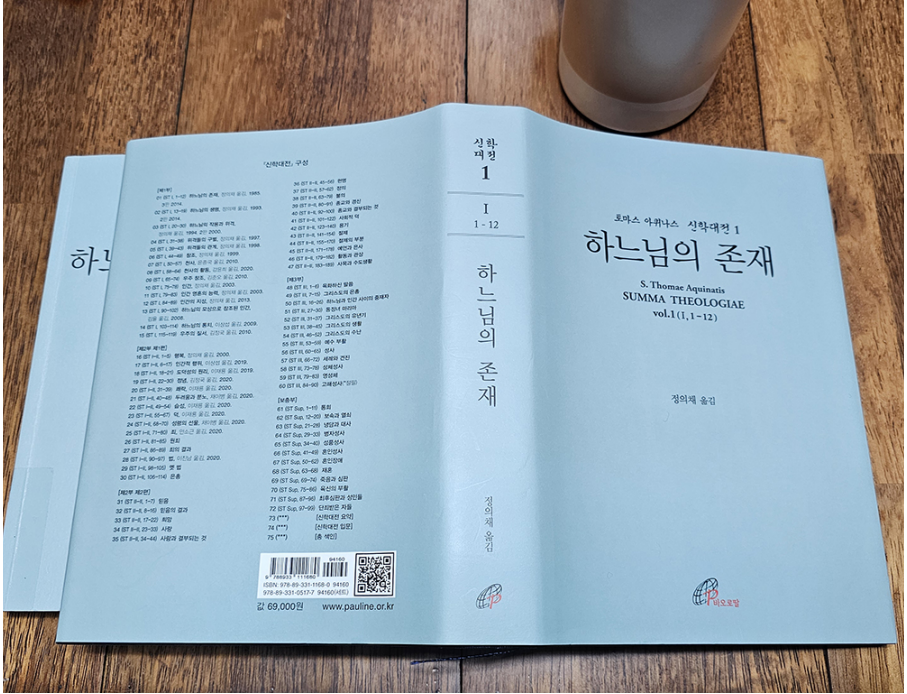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헛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속여서 가르치는 것을 '헛된 예배'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설교는 '목적 설교'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릭 워렌)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간 책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략을 짜서 전심전력하여 달려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 그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다분히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자극하는 '목적'을 세우도록 부추깁니다. 예를 들면 '이왕이면 큰 목표를 세워야 크게 성공한다.' 같은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사실은 사망의 길입니다'(잠14:12). '사람의 보기'라는 말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롬 1:28, 딤후4:2) 어떤 목적은 세상의 관습이나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목표지향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은 살짝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 없이도 잘 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세워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맘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냥 냅뒀, 하나님이 일하시게" (7710) ©최용우

그냥일기 -기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



신학대전 제1권 (사진:최우유)

신학대전(神學大全)

올해의 마지막 날 나의 10대 뉴스 중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 60권 읽기에 도전한다.

<신학대전 Summa Theologica, Summa Theologica, Summa>은 중세의 스콜라 학파였던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65-1273)가 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방대한 대표적 저서이다.

모두 제4부, 총 60권이다. 제1부는 1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여 500쪽이 넘는 책 15권이 전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방대한 ‘하나님 스토리’이다. 그런데 중국어, 일본어도 번역본이 있는데 한국어 번역본은 아직까지 35권 정도만 번역되었다. 토마스연구소에서 2030년까지 번역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하니 나도 지금부터 1달에 1권씩 읽으면서 따라가야겠다. 제1권은 750쪽 69000원이나 된다. 1월 도서비 몽땅 털어 1권 구입했다.

금남 9경

대평시장 입구에 <금남 9경 구경와유> 안내판이 새로 세워졌다.

- 1.한림정 -금강독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이상한 정자
 - 2.죽암사 대바위 -어디에 있는지도 모름
 - 3.송림사 팔상도 -절 안에 감추어져 있어 아무나 볼 수 없음
 - 4.비학산 일출봉 -금남면에서 가장 높은 산, 내가 특하면 올라감
 - 5.바람재 쉼터 -그냥 금병산 등산로 입구
 - 6.금남근린공원 -면사무소 옆에 만든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공원
 - 7.대평시장 -2,7일에 장이 서는 조그마한 시골 오일장
 - 8.피꼬리봉 -등산로 입구까지 자동차가 아니면 갈 수가 없음
 - 9.강변벚꽃십리길 -벚꽃필 때 이는 사람만 찾아가는 한적한 시골길
- 솔직히 말하면, 9경 모두 구경 갈 정도는 아님.
그냥 '금남 10대 카페' 이런 거를 선정하면 훨씬 더 인기 있을 것 같음



천안 중앙시장

장모님이 인숙이에게 “천안중앙시장 가자”고 하신다. 아내는 “나는 복잡한데서는 운전 못하니 자기가 운전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장모님과 인숙이를 모시고 천안중앙시장 갔다.

결혼하기 전, 천안역에서 한참 걸어 중앙시장 갔다가 다시 천안역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다. 약 40년 전이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장모님 모시고 두 번째 가는 길이다.

엄청 복잡하고 정신없었던 옛날의 재래시장이 요즘에는 깔끔하게 변해가는 중이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가격홍정'이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이미 가격의 5분의 1은 깎아주려고 더 붙인 것이다. 5분의 1을 깎아주기에 51장이다. 그렇게 5분의 1을 깎아서 장모님이 나에게 옷도 사 주시고 신발도 사 주셨당. 앗싸아~!



큰딸네 집

방학 때마다 서울에 사는 딸들 집에 올라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었다. 딸들이 출근하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주일에 올라갔다가 월요일에 점심을 먹고 내려왔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9시 30분에 출발하여 서울 큰딸네 도착하니 12시 30분이다. 집에서 미리 해가지고 간 찰밥과 작पाल이 끓인 두부콩나물국으로 점심을 먹었다.

‘좋은 정원’에는 온갖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마치 식물원 같았다. “이야~ 아마존이다.” 그중에 ‘필로덴드론’종 중에 ‘핑크프린세스’ 잎사귀가 새로 나서 예쁘게 자라고 있었다. 색이 2-3인 잎사귀는 매우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데, 이야... 이거 잘라서 팔아라.

영풍문고에 가서 책을 한 권씩 사고, 스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 또 치킨을 시켜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잤다.



작पाल네 집

아침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다. 아내는 새벽부터 딸들에게 부대찌개를 해준다고 주방에서 달그락거린다. 간단하게 낮은 목소리로 아내와 ‘매일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었다. 작पाल이 출근하는데 차로 직장까지 태워다 주고 왔다.

큰딸이 “낙성대입구역 근처에 큰 카페가 있는데 커피 마시러 가실래요?” 천천히 걸어서 동작고개 넘어가니 카페가 있었다. 세종에 있는 커다란 카페만 생각하고 있다가 가게 한칸짜리 카페를 ‘큰 카페’라고 하니... “서울은 이 정도도 엄청 큰거예요.” 크다는 개념이 서울과 세종이 완전 다르구나.

커피를 마신 다음, 빵집에 가서 빵을 산 다음, 집에 돌아와서 내려갈 준비를 한 다음, 다시 3시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세종 촌놈의 서울 상경기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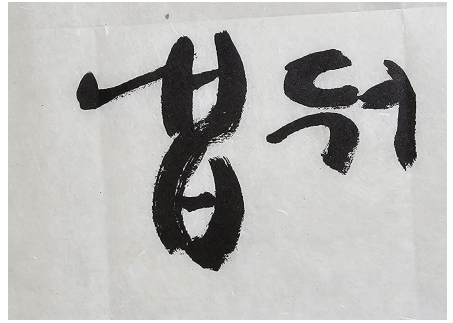
냅뒤

매년 1월에 이오 목사님이 마치 연하카 드처럼 글씨 한점씩 보내 주신다. 올해는 <냅뒤, 한님 하시게!>라 쓴 글씨를 보내 주셨다. 기도실 벽에 딱 붙였다. 올해 날마다 보면서 묵상할 화두이다.

과거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성경 한권을 번역하였는데 이오 목사님이 참여하셨다. 그런데 가톨릭은 '하느님' 개신교는 죽어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서로 주장하다가 결국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다. 그 바람에 같이 사용하자고 공동 번역을 해 놓고도 개신교는 공동번역 성경을 외면해 버렸다.

가톨릭은 지금도 '공동 번역' 성경을 쓴다. 그때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이오 목사님은 하나님을 '한님'으로 쓰신다. 죽어도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주장하는 일부 목사들은 그래서 가자미처럼 쪽 찢어진 눈으로 이오 목사님을 바라본다.

그러든 말든 냅뒤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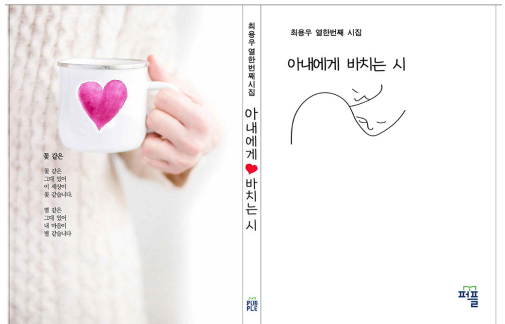


아내에게 바치는 시

작년 12월 18일이 우리의 결혼 30주년이고 아내의 생일도 겹쳐서 평생 숙제인 <아내에게 바치는 시>집을 주고 싶어 부지런히 200편의 시를 써 드디어 탈고하였다. 교보문고에서 발행하여 두 권을 이미 받아 책꽂이에 꽂아 놨다.

표지에 장미꽃 한송이를 붙일 빈공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정보가 새 나가 아내가 미리 시집을 봐 버렸다. 그리고는 시 한편을 트집 잡으며 왜 이렇게 썼냐.. 이 시는 책에서 빼달라... 나중에 2차 교정 보면서 빼주겠다고 했다.

그냥 쿠키 밥통에서 김이 피익! 피유~~ 빠졌다. 이거, 책을 쥐? 말어? 고민을... 나는 <남편에게 바치는 시>를 한편이라도 받는다면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은디... 아유~ 소크라테스 마누라 같으니라고....



불닭볶음면 체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 동남아 지역에서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인기라고 한다. 삼양라면 중에 불닭볶음면이 전체 판매의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만약 불닭볶음면이 없었으면 회사 문 닫았을 것이라고 하니 엄청 많이 팔리는 이상한 라면인 것이 확실하다. “여보, 우리 ‘불닭볶음면’ 먹어본 적이 있나?”

“전에, 엄청 매운 라면 먹다가 못 먹고 버린적 있었는데 흑시?”

“그 빨간 라면은 다른 라면이었어. 그리고 보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먹었다는 ‘불닭볶음면’을 우리는 왜 안 먹어봤다냐?”

그러야 마트에 갔는데 불닭볶음면 종류가 엄청 많았다. 까만 봉지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데 그 맵기가 장난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진짜 불닭의 절반 정도 맵다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한봉다리 사 왔다. 못 먹을 만큼 맵지는 않았다.

“다음엔 진짜 까만봉다리 먹어봐? 아침에 똥꼬에 붙아서 빨간 떡볶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나누면서 아내와 함께한 불닭볶음면 체험 끝!

주물럭 주물럭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위 포식자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만만하게 여기는 동물이 있으니 ‘고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양이는 사람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맘대로 부릴 ‘집사’를 스스로 선택한다고 한다. 다만 자존심 센 인간들이 화가 나면 무섭기 때문에 인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치 인간에게 선택을 받는 척 연기를 한다는 것이다.



고양이의 신경반응속도는 6.0인데 독사가 달려드는 것이 슬로우비디오로 보일 정도로 빠른 반응속도여서 고양이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인간들이 잡고 만지도록 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언제든 될 수 있다며 인간을 은근히 깔보는 행위라고 한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637회 칠갑산(561m) 2024.1.3

점심을 먹고 우체국에 가서 택배하나 불리고 대전-당진 고속도로를 탔다. 간간히 눈발이 날리는 날씨에 칠갑광장에 차를 대니 3시이다. 칠갑산 정상까지 3.5km 40분만에 도착했다.

정상에는 남녀커플 한 쌍이 하하 호호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저러다가 어느 순간 불꽃이 튀면 사고 치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 이미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들의 청춘시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정상 도착하자마자 인증 사진 한장 찍고 눈치껏 2-3분 만에 바로 내려왔다.



▲제638회 오서산(790m) 1.12

갈대가 유명한 오서산은 청양에서 세운 정상석이 동쪽에 있고 보령에서 세운 정상석이 서쪽에 있어 2개이다. 동쪽 정상석에서 서쪽 정상석까지 1km의 능선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갈대 능선이라 가을에는 하루에 1만명 이상의 등산객들이 바글거린다고 한다. 오서산휴양림에 입장료 주차비 내고 들어가 원효사 코스로 후다닥 올라갔다가 정상에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인증 사진만 찍고 푸다닥 내려왔다.



▲제639회 덕유산(향적봉1614m) 1.15(4명)

▲제640회 비학산294 1.25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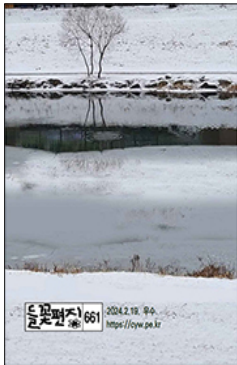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우수 -빗물

우수(雨水)는 빗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빗물은 눈과 서리가 녹아든 봄비이며, 지열이 오른 덕에 언 땅에서 녹아내린 물이기도 합니다. 우수 삼후에는 초목이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여 싹을 틔우니, 이 시기가 한해 동안 초목을 지탱하는 근원이 됩니다. 우수 입기에는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남해는 동백이 한창이라 처연하게 떨구는 붉은빛이 황홀한 시기입니다. 우수 절기엔 정월 대보름이 들어 있는데 정월장이 으뜸이라 해서 우수 절기중에 장을 담급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을겨울은 눈 보기가 쉽지 않네요. 잠깐씩 내린 눈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강을 따라 강물이 얼었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얼지 않았습니다. 호수의 물도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얼어 붙는데 한밤중에 새들이 자기들의 온 몸을 호수물에 철썩 철썩 부딪치며 호수가 어는 것을 막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호수가 퐁퐁 얼어 붙어버리면 ‘물’을 마실 수 없기에 새들은 온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그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사진:페이스북 Jo Han님 담벼락에서 가져옴)

③도서출판 소식

80.아내에게 바치는 시 (시집10) 컬러216쪽 15000원 -2023.12.26. 출간!

79.들꽃편지20권-호박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20

78.들꽃편지19권-유지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1

77.들꽃편지18권-사철채송화호 /컬러510쪽 30100원 -2023.11.6

76.들꽃편지17권-데이지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0.4

75.여유일가-2022 (일기14) 컬러396쪽 23800원 -2023.9.15.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4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매월 1권씩 신간을 낼 계획입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4.1월 재정결산

2024년 1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찬찬 김광현 김성종 김준경 넓은들 박근식 박미경 박병주 박승현 박신혜 송재숙
신희선 안덕성 양희창 오창근 오창근 옥치오 유종민 이내정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이진호 임대근 장기갑 정경애 정호숙 조정옥 조희동 지경희 최두혁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함안중앙교회 (연간후원/박기순 장사교회)
-이신자(글) 최용남(글) 박용호(책)

총 37분이 1,5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4.2.15.일까지 7736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80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 들꽃편지 합본집 1-20권 완간



1990년 1월 창간호부터 653호까지 각 권당 500쪽씩 총 20권의 과월호 합본집을 만들었습니다. 1-14권은 (21000-22000원) 15-20권 울컬러(30100-30200원)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⑥ 전도주보+파일

무조건 전도하자! 죽기 살기로 전도하자. 주보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매주 다른 내용의 전도지를 담은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⑦ 명품주보+파일

하나님 앞에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글을 읽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⑧ 좋은주보+파일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데 갑잡이 역할을 하는 좋은 영성의 글들을 모아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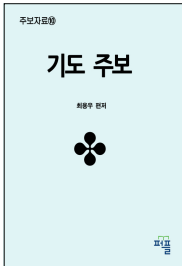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⑨ 감사주보+파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1년 동안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감사가 박히도록 하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⑩ 기도주보+파일

기도주보는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득 담은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생각이 맑아지고 정신이 순수해지고 영혼은 칼끝에 선 바람처럼 자유롭네. 2004년부터 17년 동안 500회 등산을 하면서 때로는 바람으로, 향기로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과과의 산행기록

31,800원 534쪽(올컬러)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1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